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호산나대학 학생들

하기 힘든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사랑에는 하기 쉬운 사랑도 있지만 하기 어려운 사랑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기도 쉽고 유쾌한 사랑이지만 배신자를 사랑하고 쓸모없고 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가깝고 친한 사람 사이에 선물을 주거나 시간을 주는 것은 하기 쉬운 사랑이지만 원수나 내게 손해를 주거나 내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며 값진 선물을 주는 것은 정말 극난한 사랑입니다.

기분과 형편을 따라 가끔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기 쉬운 사랑이지만 영구히 변치 않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실로 힘든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신자요 쓸모없고 천한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영원하고 책임 있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극난한 사랑입니다.

이제는 저도 하기 힘든 사랑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르치고 도와봤자 효용가치도 없고 인간구실조차 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들에게도 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눈 멀고 말 못하고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저능아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누가 볼 수 있는 눈이 되어 주고, 말할 수 있는 입이 되며,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줄 저들의 길동무가 될 것인지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장애인 주일에 "소외되고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기 힘든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봅니다.

이 중 윤 원로목사

오늘은 장애인 주일

이번 주 부터 찬양예배 시 이종윤 원로목사 강해 설교 - 오늘 찬양예배 시 사랑부 특별찬양 -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장애를 집안의 수치라는 생각 등으로 장애인을 격리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차별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2000년전에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장애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셨다.

서울교회도 교회설립과 함께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랑부’를 1992년 1월 첫주 3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 연 기도회가 장애인 부서의 시초다.

작은 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 받아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도록 하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사랑부의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또한 오늘부터 매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이종윤 원로목사의 요한계시록 강해설교가 계속 될 것이다.

기도와 기대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기 바란다.



적법시 예배 및 설교 방해죄(형법 제 182조), 퇴거불응죄(형법 제 319조 2항), 업무방해죄(형법 제 314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매 주일 12 : 40 ~ 1 : 20 (2부 예배 후)
504호

자녀와 교회를 위한
기도회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박혜정 집사 (010-8730-0452)



한국기독교학술원 제51회 학술공개세미나

5월 15일(월)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제51회 학술공개세미나를 “종교개혁의 국제적 영향과 계속되는 개혁운동과의 연관성”이라는 대 주제하에 오는 5월15일(월) 오후 2시부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첫번째 강의는 “종교개혁자들의 논지 : Sola's 에 대한 이 시대의 이해”라는 제하로 이종윤 원로목사가 하며 제2강은 “오직 성경만으로’ 그리

고 이제와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의 제하로 정성국박사가 한다.

제3강은 “이신칭의’교리에 대한 적합성” 제하로 이승구박사가 그리고 제4강은 “가난과 번영의 삶 속에서 동정과 측은히 여기는 사역에 대한 복음의 도전” 제하로 김철홍박사가 맡는다. 강사 네 분 모두가 저명한 이 시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로 우리를 깨워 주실 것으로 믿어 여러분을 초대한다.

한국 장로교, 정체성을 말한다

보이는 하나님의 은총 '성례전' II

- 성례전, 신실한 약속의 증표 -



김세광 교수 (서울장신대학교)

* 교회의 참된 표지로서 성례전

장로교회에서 성례전 집례는 참된 교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표지 중의 하나이다. 이는 스코틀랜드신앙고백서에서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설교, 교회의 올바른 권징과 함께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표지라고 규정한 것이 유래다.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에 관해서 미국 장로교회의 헌법은 개혁교회 성례전 신학을 현대교회에 진지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즉, 예수 믿는 이들을 환영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천국 잔치를 대망하면서 오늘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과의 연대를 다짐한다. 참된 교회는 성례전에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몸으로 느끼는 기회가 되도록 행한다.

* 목회와 신앙의 중심으로서 성례전

성례전은 목사로서는 목사의 핵심 직무에 속하고, 교인으로서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확인하는 표시가 된다. 총회 헌법에 의하면 성례전은 목사의 직무 네 가지, 즉 말씀선포, 성례전 거행, 교인 축복, 교인치리 중 가장 고유한 핵심 직무에 속한다. 성례전 집례에 대한 미국장로교회 헌법에 의하면 '세례반과 성찬상에서 집례할 때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해석하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소망을 향해 교인들의 비전을 고양해야 한다고 돼있다. 다른 한편으로 교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여정을 성례전으로 확인한다. 세례로 신앙이 시작되어 성찬을 대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 이란 생명은 세례로 태어나서 성찬을 먹으며 자라난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성례전적 직무를 위해서 뿐 아니라,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례전적 안목으로 목회적 돌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성례전

페루 리마에서 채택된 '세례 성만찬 사역에 관한 문서(BEM)'에서 성례전을 하나님 나라의 예전으로 묘사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성례전의 이해, 즉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

돼야 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성례전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서도 강조돼 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예다가 생명과 영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동일한 특전을 주셨다. 성례전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사명을 다진다. 따라서 성례전의 기도는 개인의 구원과 믿음 뿐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포함한다. 세계의 평화, 약자의 인권,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행해지는 성례전에서 참된 장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대망하며 이 시대와 교회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감사와 송영(doxology)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에 힘을 다해 참여하기를 소망해본다.

장애인 주일 - 사랑부

특별한 사랑



이강인 집사 (사랑부 부장)

교회 설립 이듬해부터 시작된 사랑부는 서울교회 역사와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장애인교육에 대한 비전이 남다른 이종윤원로 목사님은 1980년대부터 시무하는 교회마다 장애인 교육부서를 창립하셨고 서울교회는 설립 이듬해, 교회가 아직 이것저것 미비했지만 장애인부서는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금까지 꼬박 25년간 학생들을 보살피며 학생들에게 맛있는 반찬 한 가지라도 해주고 싶어 애쓰는 이관모 권사님은 서울교회의 자람이며 저 또한 신앙의 동역자로서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부는 초기부터 학생 자치조직도 세우고, 2006년엔 핸드벨 연주단을 창단하고, 기타팀, 난타반, 워십댄스반을 통하여 학생들을 꾸준히 지도하며 해마다 '천사들의 음악회'를 개최하고 심지어는 노방전도까지 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사랑부는 현재 30명의 학생들이 출석하여 주원순 선생님의 지도로 교회학교가 즐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 사랑부가 찬양예배 특별 순서를 갖습니다. 비록 매끄럽지 못한 노래와 몸짓이지만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으로 봐주시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사랑부에는 중증 장애를 앓는 친구가 없지만 초창기엔 주로 재활원에서 오는 친구들이어서 지체부자유 학생들을 보살피는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은 눈물겹고 특별했습니다. 식사를 돕는 일은 물론 교회에 있는 동안 학생들의 대소변까지 치우면서 저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사랑부 창립 때부터 지

장애인 주일 - 호산나대학

생산적 복지, 애국하는 호산나 대학



국내 유일무이한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기관인 호산나대학은 서울교회가 창립 이래 한결같이 품어온 교회 목표와 비전이 맺은 가시적 열매 가운데 하나이다. 호산나대학은 단순한 장애인 복지를 넘어 장애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어 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넘어서 제한된 직업을 한계를 극복하므로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제역할을 하여 대한민국의 당당한 시민이 되도록 돕고 있다.

이동귀 부학장은 호산나대학 학생을 선발할 때 장애인학교나 일반학교에 가기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이 아이들에게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시켜서들을 잘 지도하면 이들은 장애인고용(보호고용)이 아닌 일반고용의 기회를 얻게 되고, 일반인들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지금도 전산사무직이나 노인요양보호사 등 호산나대학 출신 일반고용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2006년, 노인케어학과와 사무자동화학과로 시작한 호산나대학은 그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미용케어학

과, 노인요양학과, 애견학과가 신설되어 지금은 총 5개 학과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으며 시대적 특성에 맞게 교회행정학과와 병원행정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건립할 비전을 가지고 있다.

현재 호산나대학에는 (주)트렌스 코스모스 코리아와 프로 에스컴과 장애학생취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국내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호산나대학의 성공적 성장을 배우기 위해 견학을 자주 오고 있다.

2008년을 기점으로 호산나대학은 교육의 결실을 하나 둘 선보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따서 기관에 취직을 하고 2009년에는 재학생 22명이 전국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 최초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지금은 많은 기관에서 호산나대학 출신들을 칭찬하며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이다.

호산나대학의 이같은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이동귀 부학장, 김성수 취업센터장 등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노

력과 지속적인 학사관리, 무엇보다 장애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 때문이었다.

처음 이종윤목사님이 장애인대학에 대한 비전을 성도들에게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대학의 성공 여부와 혹 교회가 안고 가야 할 부담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종윤목사님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을 선발해 그들로 하여금 사회의 정상적 일원이 되고 그들이 평생 직업을 갖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차원에까지 이르면 이야말로 생산적 복지요 교회애국하는 길이라고 했다.

호산나대학 관계자들과 학생, 학부모들은 서울교회에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보내고 있다. 서울교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페타운을 건립하고 호산나대학을 세웠기에 많은 장애인들이 꿈에도 그려보지 못한 고등교육을 기회를 얻게 되었고, 뜻밖의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주일을 맞아 우리는 호산나대학의 아름다운 성장을 보며 진정한 장애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취재 및 정리 / 허숙 권사, 사진 유은경집사)



겨울 등반



검도수업



서비스학과-타리스타교육



뷰티케어학과 실습



노인케어학과 실습



노인케어학과 실습



애견케어학과 실습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요

서울교회는 반드시 바를 서야 합니다



김형택 집사 (12교구)

서울교회는 상황의 미망에서 헤어나와 진실을 똑바로 보고 기필코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서울교회를 통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어 참으로 귀한 신앙인들을 동역자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IMF 시절 전세금 25억원을 손에 쥐고서 대치동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직영으로 건축하며 건축비를 위해 너도 나도 밤잠을 안자고 건축현장을 지키며 굶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정수장로님은 이 일에 앞장서 낮이고 밤이고 교회 건축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며 교회에 쏟는 헌신과 열정에 지금 누가 돌을 던지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세워진 대치동 예배당에 2000년 12월 25일 입당을 하던 날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빛 때문에 현당까지의 시간은 참으로 조마조마 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서울교회는 교회 예산 60%를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쏟아부으며 탈북난민보호

UN청원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이 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탈북 동포를 돕기에 자신을 온전히 바친 김상철 장로님은 내 여생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아가페타운을 개관하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을 쏟았습니까? 이 미력의 농군도 조경수와 식재 작업을 헌납하면서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교회 헌당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가 허덕이던 빛 때문에 채 허리도 펴지 못하고 시작된 아가페타운 건립이었지만 먼 앞날을 내다보며 오직 하나님의 목회를 하시는 이종윤 원로목사님을 앞장 세우고 우리는 또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돌아보니 서울교회에는 유난히도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고 한국교회의 등불이었던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아닌 강남노회의 기쁨조가 되겠다는 잘못된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 형제를 죄악으로 채색하여 원수로 만들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며 열심히 달려오던 교회를 부끄러움으로 퇴색시켰습니다. 은혜 구원이라는 환희에 취하여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함으로 성도들은 미혹 되었고, 피흘린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형제 사랑의 계명과 법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썩은 물은 고이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명하신 사역을 하지 않아 50억이 남아돌아 이 거짓 목사가 움켜쥐고 타국 만리 선교사는 손발이 묶였으니 이 무슨 악한 영의 훼방질입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자기 검증을 통하여 임기 안주를 방지하는 상반을만한 안식년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뜻이 없는 이가 어찌 서울교회 목사라고 나설 수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이 같으니 나라가 찢기고 갈 바를 잃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똑바로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사랑 서울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그 날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킵시다.

- ① 새예배당 입당예배
- ② 목회자세미나 대선후보 초청간담회-노무현 전 대통령'
- ③ 아시아로잔대회
- ④ 비전2020운동 - 우리교회가 주관한 육사세례식
- ⑤ 예배전경



동 정

- 득녀: 9교구 김경한 성도 박화련 성도
- 지난 주 간식 및 찬조 : 김일순 신금전 이영희 김명화 이정연 최금숙 박경희 정미연
- 지난 주일 식사 제공 : 최지옥집사 이정현 집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 이번 주일 식사 제공 : 백도환 집사 석춘희 권사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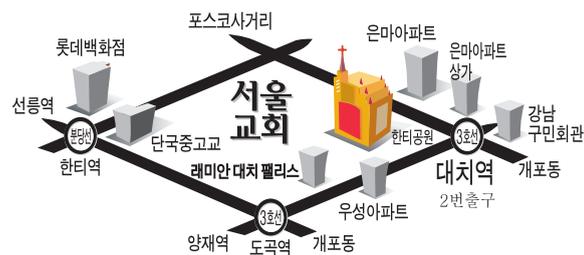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장애인주일을 맞이하여 장애인들을 더욱 사랑하고 배려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2. 다락방 모임에 적극 동참하여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게 하옵소서.
3.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